

“최종 목표, 파리올림픽 우승”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
실내세계선수권 우승
금메달 걸고 '금의환향'

한국 육상 최초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우승을 달성한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금의환향했다.

우상혁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반짝이는 금메달 만큼이나 환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우상혁은 김도균 한국 육상대표팀 수석도약 코치 등과 함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우상혁은 “체르비아에서 지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축하해주고 계속 내 이름을 불러줘 경기장에서 (우승 감격을) 많이 느꼈는데, 한국에 오니 또 실감이 난다”며 활짝 웃었다.

이들 전 우상혁은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썼다.

그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4로 우승했다.

자신이 작성한 한국 신기록인 2m3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상에 서기엔 손색이 없었다.

한국 선수가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우승한 건 처음이다. 종전 이 대회 한국 선수의 최고 성적은 손주일이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남자 400m에서 기록한 5위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최초라는 타이틀에 항상 목이 말라있었다”며 간절했던 마음을 드러낸 우상혁은 “이제 최초라는 타이틀이 생겼으니 앞으로도 계속 ‘최초, 최초’를 경신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늘 밝은 표정의 우상혁은 우승 확정 뒤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상혁은 “아시아시파 육상은 잘 모르는 종목 중에 하나다. 내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잘 뛰었지만 메달은 못 따냈다. 이번 시즌 세계랭킹 1위를 하고 있었지만 (세계선수권에서)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런데 1등이 확정되니 무거웠던 짐들이 다 내려간 것 같았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우상혁의 예상밖이 않은 도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우상혁은 지난해 7월 30일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기록, 9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결선에 나선 건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남자 높이뛰기 이진택 이후 25년 만의 일이었다.

8월 1일 열린 도쿄올림픽 결선에선 당시 개인 최고 기록보다 2cm나 높은 2m33을 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우상혁이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최초 타이틀에 목 말라있었다
2m40 넘는 것이 최종 목표
도전하는 것에도 의미 있어”

어닝었고, 2m35까지 날아오르며 1997년 이진택이 세운 2m34의 종전 한국기록도 갈아치웠다.

비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당당히 4위에 이름을 올려 한국 육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우상혁 이전까지 한국 육상 트랙·필드 선수의 올림픽 최고 성적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이진택이 작성한 8위였다.

올해도 우상혁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지난달 6일 체코 후스트페체에서 2m36을 뛰어 한국 기록을 1cm 끌어올리더니 같은달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벌어진 실내 육상대회에는 2m35로 우승했다.

세계랭킹 1위까지 올라선 우상혁은 기세를 이어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최근 몇 년간 정체를 떠다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완벽한 반등을 일군 우상혁은 “비결은 딱히 없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런 방법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즐기는 것도 더 잘 즐길 수 있고, 올림픽 이후 더 재밌어진 것 같다. 운동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경기도 뛰었다. 세계선수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좋은 성적이 났다”고 짚었다.

“월드클래스”로 확실히 올라선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마르코 램베리(이탈리아)의 축하를 받고, 우상 스테판 홀름(스웨덴)에게 메달을 수여 받았다.

“램베리가 네가 우승자다. 즐기자고 말해줬다”며 웃으면서 “나의 엄청난 롤모델인 홀름에게 메달을 수여 받아 정말 뜻깊었고,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이게 맞아. 내가 진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우상혁은 이번 대회 2m31에서 1.2차 시기를 실패했다. 그러나 3차 시기에서 성공한 뒤 팔짱을 끼고 비를 바라보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3차 시기를 앞두고) 내가 2m31을 넘지

못하면 다시 뒤로 가고 넘으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뛰었다”고 떠올렸다.

세리머니에 대해서는 “봤나. 내가 지금 랭킹 1등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뜻이었다면서 씩스러운 듯 웃었다.

그가 보여준 자신감은 우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토록 꿈꿨던 한국 육상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그의 진짜 꿈에는 도달하지도 않았다.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기록인 2m36보다 1cm 높은 2m37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우상혁은 “다음 목표는 2m38이고, 그 다음 목표는 2m40이다. 그렇기 때문에 2m37은 무조건 넘어야 하는 높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에도 의미가 있다. 못 넘더라도 도전해보면 언젠가 넘기 마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월드 챔피언이란 타이틀은 쉽게 얻는 게 아니다. 난 현재 경합을 쫓아가는 중”이라는 우상혁은 “단기적인 목표는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2024 파리올림픽 우승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우상혁 우승에
“더 높이 도약하길”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리스트가 된 우상혁 선수에게 축하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육상에 같이 빛날 이정표”라며 “세계 정상에 오른 우 선수에게 국민들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과 환한 미소가 국민들 가슴속에 아직도 선명하네, 이제 세계 높이뛰기 선수 중 가장 높은 비를 뛰어넘었다”며 “‘스마일 점퍼’의 자신감이 이룬 결과”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지난 체코대회에서는 한국 기록을 세운 우 선수에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우 선수의 우승으로 무엇보다 육상 후배들이 큰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면서 “더 높이, 늘 경쾌하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우상혁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메달 획득은 한국 선수 최초다. /뉴시스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자생력 강화 정관 개정 승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주)(대표이사 서필환 이하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지난 21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자회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이사 2인을 선임하여 자회사의 주요 사안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2021년도 이익 잉여금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재단과 자회사는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위해 ‘재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2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재단과 자회사의 근로 조건과 작업환경·복지 등의 개선, 자회사 자립을 재단이 적극 지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기(분기 1회)·비정기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적극 소통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자회사는 재단의 한 식구로 재단과 동등한 기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독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경영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